

“1인당 1억 배상” 3개월만에 “각하”...정반대 위안부 판결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 20명 2차 소송서 패소 두 재판부 ‘국제법상 국가면제’ 판단 엇갈려 논란 예상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고(故) 배준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1차 소송에서 승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의 쟁점으로 작용한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를 두고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오전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

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강제 노동·민간인 살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오로지 국내법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면제에 취한 태도와 배치되고 국제 사회의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정반대 결론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준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을 경우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목포대 8년 연속 최우수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1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8년 연속이자 총 9차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전국 252개의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 실적과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인력의 전문성, 운영 인프라, 사업계획의 효과성, 유관기관 연계(개방형 협업), 운영 실적 관리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지원사업’과 ‘BI보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해 올해도 입주기업들의 성공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예산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전남교육청, 실천단 공모

전남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과 미래교육 전환을 앞장서 실천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천단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의 생태교육·스마트교육·마을교육·공간혁신 네 영역에 대한 교육활동을 함께 실천하고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생태교육 분과는 학교에서 생태감수성 교육과 탄소배출 줄이기 등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만들기를 실천하며, 스마트교육 분과는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형 스마트 교수학습과 스마트한 학교교육 운영시스템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마을교육 분과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마을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실천한다. 공간혁신 분과는 자신이 살아갈 공간을 바꿔내는 공간 프로젝트 수업과 새로워진 학교 공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한다.

도 교육청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네 분야 전문가 40여명을 실천단으로 위촉해 운영하며 이들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독후감쓰기 약속하면 동네서점 책 ‘무료’

광주 동구, 광우서점 등 9곳과 업무 협약

광주시 동구가 독후감 쓰는 시민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준다.

동구는 독서문화 확대와 지역서점들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최근 동네서점 9곳과 ‘구민도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민도서 지원사업은 동구 도서선정단 심의를 통해 선정된 권장도서 100권 중 1권을 신청하면 동구내 9개 협약서점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점은 광우서점, 대양서림, 검은책방, 흰책방, 책과 생활, 총장서림, 소년의서, 산수책방 꽃이피다, 책방 십가네막씨, 하나서점 등이다.

무료로 책을 받기 원하는 시민들은 행복복지센터나 9곳의 서점 등을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에

서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책을 읽고 동구 홈페이지에 독후감을 올린다는 약속을 하면 동구 구민뿐만 아니라 동구 지역에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시민들도 공짜로 책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서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영세서점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주민들의 독서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접근성 좋은 도서 구매를 통해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작은 서점들을 통한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은 물론 책을 매개로 한 마을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교육 전국화...온·오프라인 병행

광주교육청, 전국 교원 학습 동아리 100팀 조직...꾸러미 보급

광주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사업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기존 대표적인 5·18 교육 전국화 사업이었던 전국 교원(500명) 초청 연수를 교원들의 자율적 연구 및 연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국 5·18 학습동아리 100팀을 조직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초·중등교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대 인원은 팀당 4명으로 설정했다. 동아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5시간의 원격연수와 5·18사적

지 탐방을 필수로 하는 10시간의 자율기획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현장 중심 5·18 교육을 위해 전국 교원 300명에게 5·18교육 꾸러미도 보급한다. 5·18교육 꾸러미는 시 교육청과 5·18기념재단이 최근 개발한 9종의 책자와 교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들불열사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5·18교육 온라인 플랫폼 ‘오월아 놀자’를 구축해 오는 5월 10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오프라인 5·18청소년 캠프를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했다. 5·18의 주요 과정과 당시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게임과 이벤트를 가미해 구성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